



2만불 시대
중소기업이 일어납니다



중소기업청
브리핑

제20호 2004년 5월 21일 (금) 공보담당관실 TEL.042-481-4329~32 / FAX.042-472-3264

제16회 전국중소기업인 대회 개최

- 노무현 대통령,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육성의지 천명 -

2004년 전국중소기업인대회



대통령 축하 메시지를 이희범 산자부장관이 대신 낭독하고 있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제16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17일 오전 10시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제회의장에서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 유창무 중소기업청장, 김용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및 기업대표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중소기업인대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경영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

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대책을 적극 수립하고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며,

아울러 대기업과 경쟁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과학기술 혁신과 인재양성정책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 기술개발 선도 중소기업과 지방중소기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드래곤정기(주) 전용배 대표와 (주)신일프레임 노상철 대표가 각각 금탑산업훈장

을 받는 등 모범 중소기업인 및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등 총 237명의 유공자가 정부훈·포장 및 표창을 받았다.

▶ 중소기업정책국
기업환경개선과
(02-503-7930)

미국서부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거점 확충

- LA ASP 센터 개소 -



유창무 중기청장 등 주요 참석자들이 ASP센터 개소 테이프 커팅을 진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5월 14일 미국서부 LA에 수출중소기업의 공동물류 및 AS 기능을 대행할 “LA ASP(After Service & Profit) 센터”를 개소했다.

지난해 보스톤 ASP센터 설립에 이어, 서부의 요충지인 LA에 설치한 “LA ASP 센터”는 500평 규모로 물류창고, AS센터, 입주사무실 등으로 구성되어, 활용계약을 맺은 수출중소기업에게 수출제품의 미국시장 수요에 적기대응을 위한 물류지원, 반품·수리 등의

AS 대행, 현지 마케팅 지원 등의 서비스를 실비 수준으로 제공하여 현지 네트워크가 부족한 수출 중소기업에게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지시간으로 5월 14일 15:30분이 거행된 개소행사는 유창무 중소기업청장을 비롯하여 James Dear Carson시장, Erika Kim LA상공회의소회장, 하기환 한인회장, 재미교포기업인 등 LA현지 유력인사와 장홍순 벤처기업협회장, 이영남 여성벤처협회장, 활용 중소기업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 기업성장지원국
해외시장과
(042-481-4464)

『에비 무역전문가』 해외 현지 마케팅 전담

- 해외시장개척요원 후견 중소기업 500개사 모집 -

중소기업청은 외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젊고 패기 있는 미취업 해외시장개척요원을 한시적으로 해외 마케팅 인력으로 활용할 후견 중소기업 500개사를 모집한다.

선정된 후견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개척요원은 2주간 후견기업에서 현장연수 받게 되며, 연수기간 동안 후견기업 수출품목의 가격, 특성, 시장동향, 바이어 정보 등 필요한 정보와 노하우를 익히게 된다.

연수 후 해외시장개척요원들은 전세계 63개국에 4개월간 파견되어 현지에서 시장조사에서부터 바이어 발굴 및 상담, 수출

계약 체결까지 후견기업을 대행하여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게 되며, 후견기업은 그 성과 등을 고려하여 시장개척요원의 채용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후견기업의 참여자격은 수출가능성 있고 수출의지 높은 중소기업체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6월 5일까지 각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후견기업을 지원할 하반기 해외시장개척요원을 모집한 결과, 24개 언어에 746명이 응시하였으며, 5월 27일 시험을 거쳐 그 중 500명을 선발하게 되며, 선발된 해외시장개척요원은 6월14일부터 8월 7일까지 무역실무 및

후견기업 연수를 거쳐, 8월 중순부터 해외에 파견된다.

▶ 기업성장지원국
해외시장과
(042-481-4465)

중기,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에 40억원 지원

- 개발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의 구매 보장도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할 경우 개발제품을 수의계약에 의해 구매를 보장하는 “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의 올해 지원대상과제에 대해 1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수요기관인 국방부, 한전 등 공공기관이 개발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해 중기청이 기술개발비를 지원하며,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이 일정기간 구매를 보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올해에 40억원이 지원된다.

이번 지원대상과제는 국방분야 17개, 철도분야 3개, 전력·수자원분야 4개,

가스분야 2개 등 총 26개 과제이며, 지원금액은 과제당 기술개발비의 75% 범위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이고, 구매보장기간은 국방 및 철도분야 5년, 전력과 가스분야 2년이며, 구매예상액은 282억원으로 업체당 10억원이상의 구매가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정부의 기술개발지원사업이 개발비 지원에 그치고 기술개발 후의 판매에 대해선 업체 자율에 맡긴 것과는 달리, 중기청이 국방부, 한전, 가스공사 등과 개발제품을 수의계약에 의해 구매를 한다는 협약을 체결하여 구매를 보장함으로써 참여 중소기업은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됨에 따라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

으며, 지원대상과제의 대부분이 수입대체품목으로 외화 절약에도 기여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5월 17일부터 31일까지 중기청 홈페이지 (<http://www.smba.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각 지원대상 분야별로 철도청, 국방품질관리소, 한전, 가스공사, 수자원공사에 신청하면 된다.

▶ 기술지원국
기술개발과
(042-481-4444)

중소기업 CEO 1,500명에게 경영혁신교육

- 전국 20개 대학·단체에 강좌 개설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CEO들의 경영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벤처기업협회와 전국 19개 대학을 통해 『중소기업 CEO 경영혁신 아카데미』를 개설한다.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고, 경영위험 진단 및 대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오는 6월 1일부터 4주간에 야간과정으로 운영되며, 현장강좌 참석이 어려운 경영자를 위해 매경TV와 공동으로 특집프로그램도 제작하여 방송할 예정이다.

교육은 중소기업의 컨설팅 활용과 사례, 경영혁신 사례, 중소벤처기업의 M&A, 해외시장 진출 노하우, 경영위험의 진단과

대처방안 등 8개 과목에 대해 국내 최고수준의 민간전문가를 통해 성공사례 등 실무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비는 전액 국비에서 지원되며, 과정수료자에게는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시 경영자평가의 배점을 우대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자는 지역별 교육기관에 신청서식에 의거 E-mail 또는 FAX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각 강좌당 모집인원은 선착순 70명이다.

▶ 중소기업정책국
지식서비스기업과
(02-503-7925)

1,300여 중소기업에 정보화 컨설팅 지원

- 컨설팅전문기관 66개 기관 선정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정보화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화컨설팅사업”에 올해 104억원을 투입하여 1300여개사를 지원키로 하고, 서울대학교 등 66개 기관을 컨설팅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컨설팅기관에는 각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한 87개 기관 중 사업계획 검토 및 평가회의를 통하여 지역별로 정보화 지원능력이 우수한 기관이 선정됐다.

또한 중소기업이 소재지역 내에서 손쉽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기관을 지난해 40개에서 올해 66개로 확대했으며, 정보화컨설팅을 수행한 컨설팅기관이 S/W구축까지 일괄지원토록 하는 등 지원을 강화했다.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정보화컨설팅 사업은 중소기업의 요구 또는 정보화진단을 토대로 정보화추진에 필요한 분야별 지원과제를 도출하여 컨설팅을 실시하는 '정보화 추진전략 컨설팅', 정보화 도입단계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보화 추진전략 수립에서 업무재분석, S/W구축까지 일괄 컨설팅을 수행하는 '정보화 활용 컨설팅' 및 정보화 운영·개선 단계의 기업 및 정보화활용컨설팅 완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경영체제(IMS) 컨설팅' 등이며, 지원금액은 기업 규모에 따라 4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이다.

중기청은 앞으로 정보화 컨설팅사업이 여타 정보화지원사업과 연계 지원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중소기업

의 정보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 기술지원국
기업정보화과
(042-481-4403)

정보화혁신전문기업사업 새로운 정보화지원제도로 정착

- 104개 중소기업 정보화에 50억원 지원 -

중소기업청은 올해 정보화혁신전문기업(TIMPS) 사업에 50억원을 투입하여 104개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정보화혁신전문기업(TIMPS : Total Information Management Providers)으로 선정된 기업들이 중소기업에 대해 정보화 전략수립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 받은 중소기업이 이를 성공적으로 활용하는 시점에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2년 처음 시작됐다.

올해에는 지원대상 업종에 건설업을 추가하고, 모기업과 협력기업간의 협력형 컨소시엄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기업간 연계지원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원대상 중소기업에는 지난 3월에 191개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 및 기술평가를 거쳐, 3개 협력형 컨소시엄을 포함한 104개사가 선정됐다.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보화 진단 및 감리비,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총 소요비용의 50%이내에서 업체당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올해 처음으로 선정된 협력형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1개 컨소시엄당 총 소요비용의 50%이내에서 최고 2억원(모기업은 최고 5천만원, 협력기업은 업체당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추진할 정보화혁신전문기업에 기존의 대우정보시스템(주) 등 8개사 외에 (주)누리인포스,

(주)더존다스 등 7개사를 추가로 선정하여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중기청은 앞으로 정보화혁신전문기업사업의 지원업종 및 지원규모를 점차 확대하고, 성공적으로 이 사업의 지원받은 중소기업을 정보화 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등 이 사업을 새로운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제도로 정착시킬 예정이다.

▶ 기술지원국
기업정보화과
(042-481-4400)